

# 전주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난다

### 김광혁 교수 “숲·공원 등 녹색공간 쉽게 만날 수 있고·의료·교육서비스 다양하게”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6일 시청강당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소개 및 아동권리 특강에 이어, 학교장과 변호사, 시의원 등 7명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수 전주 시장을 비롯해 양영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시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아동권리 특강을 듣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발제한 내용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꿈꾸며’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친화도시란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고,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을 맘껏 표현하는 것”이라며 “숲과 공원과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동 친화도시”라고 정의했다. 이어 “전주시는 소외된 아이들이 없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아동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를 배려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아동기의 투자는



전주시와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이옥자)는 16일 시청강당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소개 및 아동권리 특강에 이어, 학교장과 변호사, 시의원 등 7명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 행위로, 아동복지는 미래의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인 될 것”이라며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해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며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주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강에 이어 한소령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자치회장과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연수 금암초등학교장 임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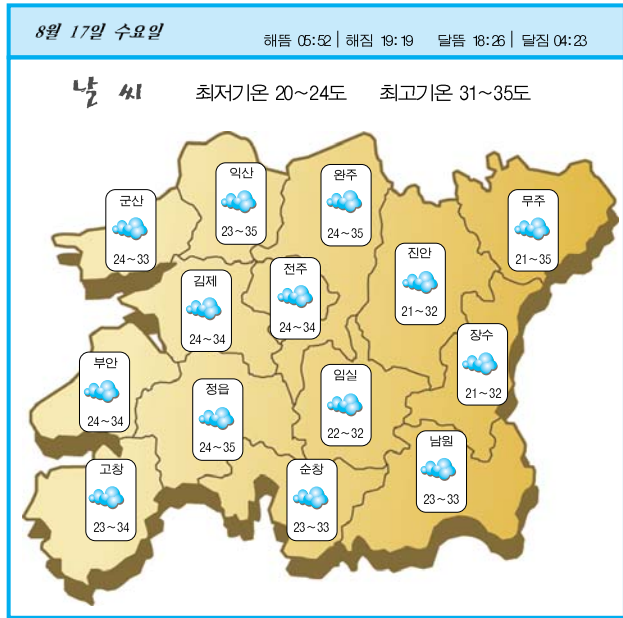
회 이명연 의원 이옥자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 아동관련 전문가 7인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앞서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 IT팀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아동의 안전한 생활 보장,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등의 의무 사항을 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아동권리인식도 및 아동친화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김광수 전주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란 아이들이 스스로 분인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기울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 NGO단체, 유관기관 등 시민들 모두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대해 공감하고,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찾아서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 신호근 교수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북대학교 신호근 교수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정년을 앞두고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교에 기탁했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말 정년을 맞는 신호근 교수가 후학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나를 있게 해준 대학과 후학들에게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으며 ‘평생 애정을 쏟았던 대학이 더욱 발전하

고 후학들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구순구개열을 비롯해 턱교정 등 얼굴 기형 수술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특히 매년 해외봉사를 통한 베트남 구순구개열 환자 무료 수술로 베트남 국민건강증진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민형기자

## 전북대 농악·풍물굿연구소-김제농기센터, 백중놀이 복원

### 마을당산제·만두레 행사·승경도·다듬이질 놀이 등 독특한 마을 축제 행사재현키로

농민들이 김매기를 모두 마친 후 푸 집한 음식을 나누며 노는 우리의 전통놀이인 ‘백중놀이’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엔 힘들지만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관상마을에서는 7월 백중놀이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풍속인 백중놀이를 복원하기 위해 전북

대학교 농악·풍물굿연구소가 김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나섰다.

전북대 농악·풍물굿연구소와 김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17일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관상마을에서 전통 7월 백중놀이 복원 행사를 갖는다. 관상마을은 김제에서 1관상, 2장화, 3평고라 불릴 정도로

여로부터 김제에서 가장 전통이 깊고 문화콘텐츠가 다양한 마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에서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온 7월 백중놀이 행사의 마을 당산제, 마을 만두레 행사, 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승경도 놀이와, 들독놀이, 다듬이질 놀이 등의 독특한 마을 축제 행사를 벌인다.

/고민형기자

그리고 이번 축제에서는 이 마을의 독특한 전통음식인 간지밥, 도토리묵, 토하젓, 새우호박국 등이 마을 전통주와 함께 준비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김제에서 가장 많은 과거 급제자를 낸 마을답게 마을에 전승되어 온 수많은 고문서와 유물들이 마을 전시관에 해설과 함께 전시돼 마을의 전통을 아낌없이 내외에 드러내 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2학기 국가장학금 18일부터 신청 접수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접수가 18일부터 9월8일까지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마감일인 9월8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재학생 중 1차 신청기간(5월19일~6월4일)에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도 이번 2차 신청기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전형은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이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8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뉴시스

**IMSIL-GUN 임실군**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

**세심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 http://smhu.imsil.go.kr

**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2-9456~7
- http://www.sunsusan.co.kr

구독·광고문의 288-9700